

의복과 문화적 접근: 질적 연구 방법의 중요성

김 현 식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Clothing and Cultural Approach: The Importance of Qualitative Method

Hyunsik K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9. 11. 15 접수)

Abstract

Despite the important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 little is used to understand dress and culture in Korea. This study propos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o understand deeply cultural aspects of dress. The articles which were selected from J. of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published master's thesis and doctoral dissertation, and interdisciplinary articles were analyzed from 1977~1999. Based on results of the analysis of articles, it was found that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appropriate to understand dress and culture. Many articles were dealt with non-western culture. However, the use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s very well suited to help the researcher understand concepts that are deeply embedded in western culture. Implications pertain to researcher in the area of human behavior and marketing. The importance of dependability and credibility was discussed in qualitative research method.

Key words: Culture,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research method; 문화, 연구방법, 질적연구방법

I. 서 론

의류학 연구 분야에서 질적 양적 방법론에 대한 인식적 차이가 대두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의류학 자간에 두 방법론의 장단점에 대하여 많은 토론이 진행중이다(Boynton-Arthur, 1993; Burns & Lennon, 1993; Locker, 1993).

현재까지 의류학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양적 연구 방법이 많이 사용되어졌다. 양적 연구 방법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와 이를 분석하는 통계 프로그램에 의해 많은 유용하고 유의한 결과들이 산출되었으나,

몇몇의 연구자들은 연구의 외적 타당도(external validity)와 측정 신뢰도(measurement reliability)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Boynton-Arthur, 1993; Burns & Lennon, 1993). 또한 때때로 데이터가 통계처리과정의 가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것이 결과해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양적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부과되어져 있는 고유의 제한점에 문제점을 느끼고 그 대안적 방법으로 나타난 것이 질적 연구 방법이다. 특히 인류학의 민족지적(ethnography) 분야에서 질적 연구 방법이 그 적합성으로 인하여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복식의 문화적 관점에서 질적 연구 방법이 응용되기 시작

하였다. 의류학 분야에서는 복식과 문화라는 학문 자체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아울러 질적 연구 방법 역시 낮설다. 의복이 이념, 상징 또는 문화적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경우, 예를 들면 호모와 레즈비언의 의복 코드, 사회적 도덕과 관련된 복식 행동 등과 같은 연구 주제는 기존의 서베이 테크닉으로는 유의한 결과를 얻기 힘들고, 타문화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현대사회는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인식 하에 글로벌 마케팅이 필연적이고, 글로벌 마케팅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요 조건중의 하나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이다. 타문화에 대한 심층적 다면적 이해는 현재까지 이용되어온 양적 접근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제한점과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존의 양적인 방법 이외의 대안적 방법을 모색하게 한다.

따라서 본 고찰에서는 의복의 문화적 접근과 그 방법론으로 질적 연구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의복과 문화라는 주제를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발표된 문헌을 조사하여 그 응용범위를 살피고자 한다. 본 고찰은 앞으로 문화 인류학적 관점에서 인간 복식 행동과 마케팅에 관심 있는 연구자에게 기초적인 이론을 설명하고 방법론을 제안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I. 문화와 마케팅

복식과 관련된 인간행동을 이해하는데 사회 심리적 접근은 중요하며 이미 연구된 업적이 방대하다. 문화 체계 하에서 이러한 연구의 이해는 복식에 관한 인간 심리행동의 더욱 포괄된 이해를 도울 것이다. Roach & Eicher(1979)는 한 문화 체계에서 의복이 상징적 의사 전달의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의복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회적 역할, 경제적 지위, 정치적 종교적 견해, 사회적 의식(social ritual)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고 하였다. 이렇게 물질 문화로서 의복은 문화 체계 안에서 다양한 문화 패턴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문화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White(1975)는 세

가지 범주를 들어 문화를 정의하였다. 첫째로 인간이 만든 기술이나 물질 문화(technology), 둘째로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직한 것으로 예를 들면 가족이나 교육기관(social structure)등을 들 수 있다. 셋째로는 인간의 생활을 가이드하는 신념이나 가치체계(ideology)를 들 수 있다. 의복은 물질 문화를 구성하는 것의 하나로 사회적 조직이나 가치 신념체계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 세 요소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한 요소가 변하면 다른 문화 요소의 변화에도 영향 한다.

Hamilton(1987)은 문화의 3 요소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문화 하부 구조에서 의복에 관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그녀는 문화의 요소와 문화 메카니즘의 상호작용으로 경제조직, 정치조직, 가족/인척조직, 사회화, 이념조직, 예술과 미적 범주, 의사소통의 7 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문화체계에서 의복의 역동적 기능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의복과 관련된 우리 문화와 타문화의 이해는 세계의 인식과 글로벌 마케팅에 어떻게 관련되어질까? Hall(1960)은 외국과의 교역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국의 문화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언어적 의사 소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의사소통 영역인 시간, 공간, 물질 소유, 친구 관계, 합의의 언어에 관한 여러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였다. Douglass(1977)는 교역 대상국의 소비자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글로벌 마케팅의 성공 열쇠이며 국제 마케팅 전략의 중요한 주제임을 강조하였다. Burkhalter(1988)는 제 3국가의 소비자는 타문화의 수용에 있어서 예기치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면서 국제 무역에 있어서 사회적 맥락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UR이후 전 세계가 WTO 체계 하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의류업체가 생존의 길을 모색하면서 내세운 전략 중의 하나가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들었다. 이러한 전략의 기본적 전제는 대상 교역국의 문화 체계의 이해이다. 예를 들어 White의 문화 정의나 Hamilton의 문화하부구조에 근거하여 의복과 관련된 교역 대상국의 문화 요소 이해는 기본적이다.

Kim(1996)은 미국과 한국 소비자의 직물촉감에

관한 문화비교연구를 하였다. 두 나라의 소비자는 언어적, 사회 문화적, 물리적 환경과 관련하여 의복 직물 선택과 선호도의 차이를 보였고, 이러한 차이는 양국의 의복과 직물 수입 수출업자에게 교역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최근 글로벌 마케팅은 소비 뿐 아니라 생산도 다국적으로 하여 해외 아웃소싱(outsourcing)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우리 나라도 디자인과 제품기획은 한국에서, 생산은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하는데 대상국 근로자, 사업 관행, 규제 등의 이해는 해외 아웃소싱 성공의 필수조건이다. Kim(1995)은 미국 의류와 신발 생산의 생산지전략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해외 생산기지의 특이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타문화의 마케팅과 관련된 이해는 기존의 양적 연구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III. 문화 인류학의 전제 조건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학문으로서 문화 인류학은 문화의 맥락 속에서 연구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인류학적 용어로 자연주의(naturalism)이라고 한다. 풍부한 문화적 의미나 상징은 한 사회의 자연적 환경(natural environment)과 그 문화에 속한 구성원으로부터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의 인류학자들은 타문화에 대한 정보를 선교사, 여행자, 상인들의 인상주의적 설명에 의존하였는데 이는 다분히 타상공론적이었다. 20세기 이후 인본주의자들이 진화론적 발전론자를 반격하면서 한 문화를 다른 문화와 비교하여 높고 낮은 우열을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현장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연주의는 문화 인류학의 기본 관점이 되었다. 직접적 대면은 아무리 단순한 문화일지라도 그것의 본질적 존재 가치를 가르쳐 준다. 이러한 개념은 문화적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로 이어진다. 문화적 상대주의는 문화란 하나의 전체로서 그것 자체의 견지에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화 이외의 다른 문화를 연구할 때 우리 자신의 문화적 선입견에 동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는 자기민족우월주의(ethnocentrism)을 피하라는 것이다. 문화적 상대주

의는 한 사회를 연구할 때 내부자적 관점에서 이해 되어져야 한다는 에믹(emic) 관점과도 일맥 상통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자적 관점은 내부인(insider)이 그들의 문화적 체계가 작동하는 방법에 대하여 종종 왜곡된 관점을 가진다는 문제점이 있기도 하다.

한편 문화의 비교론자(cultural comparatism)들은 문화의 요소들은 그것이 속해있는 문화적 맥락에서 분리하여 다른 사회 문화적 맥락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 요소와 비교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비교는 문화 현상에 대한 좀 더 일반적인 진술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문화 비교론은 외부자적 관점(ethic approach)과 관련된다. 에틱(etic)은 인류학의 개념 범주에 의거하여 그 문화가 외부에 어떻게 비치는가에 따라 문화를 기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비교, emic/etic 구분은 문화 인류학이 법칙을 찾는 실험과학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해석적인 과학이라는 특성 때문에 중요한 논쟁점이 되어 왔다.

문화 인류학 연구는 전체주의(holism)를 강조한다. 하나의 문화는 "하나의 전체"로서 연구되어지고 개념화되어야 한다. 문화 체계에서 어떤 한 부분은 다른 부분과 상호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IV. 질적 양적 연구 방법

실증주의적(positivistic approach) 접근 방법은 이론이나 법칙에 따라 인간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고 연역법적인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 보다는 양적 접근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 방법은 이미 사회 심리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어 본 고찰에서는 더 이상의 언급은 피하고 질적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자연주의/해석적(naturalistic/interpretive) 접근 방법은 인간 행동의 의미를 자연적 환경에서 내부자적 관점으로 이해하고자 하고 귀납법적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연구의 목적은 현상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질적 연구 방법을 주로 이용하는데 문화 인류학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한 참여 관찰, 심층 면접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Loker(1993)는 질적 양적 방법의 주요한 차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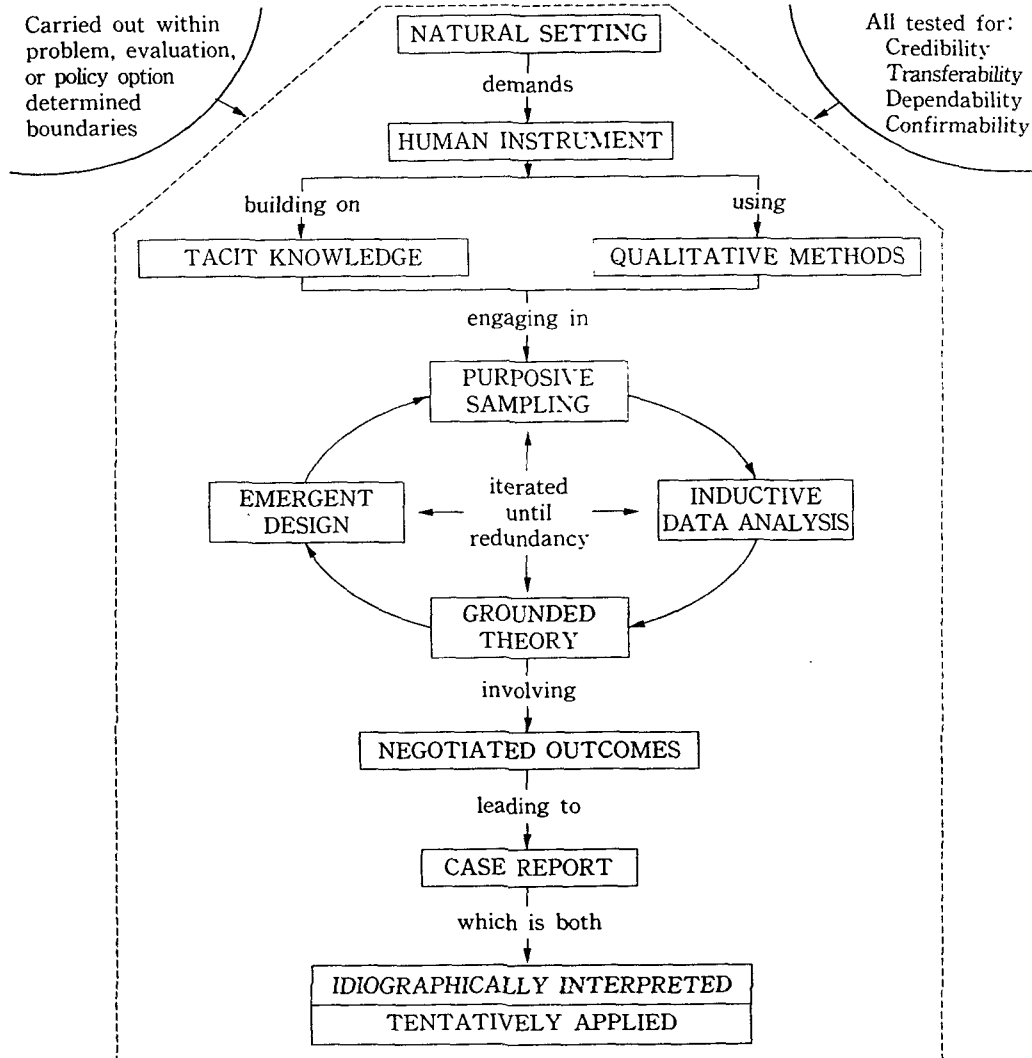


Fig. 1. The flow of naturalistic inquiry(Lincoln & Guba p. 188, 1985)

정보가 기록된 말이나 숫자의 문제라고 하였다. 양적 방법은 정보들이 주로 숫자의 형태로 질적 방법은 말의 형태로 기록된다. 자연주의적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 전체주의와 자연적 환경에서 다면적 진실을 이해하는데 있다면 이를 위해서는 질적 연구 방법이 더 적합하다고 하겠다.

Fig. 1은 Lincoln & Guba(1985)의 자연주의적 접근의 연구 단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연구자 자신이 연구의 도구로써 이용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편취되지 않아야 하고 훈련과 객관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목적적 표집(purpose sampling)을 하고 피험자의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보가 계속해서 중복되거나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된다. 또한 기준에 결정되었던 연구 절차가 연구가 진행되면서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emergent design), 계속적인 관찰이나 정보 수집 결과 잠정적인 이론(ground theory)을 개발한다. 잠정적인 이론은 가설 없이 현장에서 계속적 관찰을 통해서 발전된다고 하였다(Bailey, 1987). 따라서 귀납법적 정보 분석에

서는 연구자가 얼마나 그 스스로가 연구에 몰두하여 뚜렷한 주제들을 발견하느냐가 중요한 관점으로 이것은 시간과 정보 수집의 양적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양적 연구방법의 연구는 여러 가지 통계기법이나 전문가를 통하여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한다. 문화 인류학적 연구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양적 연구방법에서 쓰이는 신뢰도, 타당도 검증방법이 적당치 못하다. 그러나 문화 인류학적 연구의 객관성 문제는 수 차례에 걸쳐 인류학자들의 검토의 문제였다. 이 문제의 가장 고전적인 사례는 남부 멕시코의 Tepoztlan 마을의 사례 연구이다. 1920년대 Redfield는 최초로 이 마을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를 통하여 이 마을을 조화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친족 공동체로 묘사하였다. 약 20년이 지난 후에 Lewis는 이 마을을 연구한 결과 극심한 빈부 격차와 개인의 갈등으로 인하여 분열된 마을로 묘사하였다. 물론 20년의 시간 격차를 이러한 변화 원인의 일부로도 볼 수 있으나 어떠한 설명이 진실에 가까운지는 논쟁의 실마리가 된다.

Lincoln & Guba(1985)는 질적 연구 방법에서 연구의 타당도(validity)를 credibility라고 하고, 신뢰도(reliability)를 dependability라고 하였다. 그들은 질적 연구 방법에서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1) 보다 오랜 현장 참여와 관찰을 통하여 잘못된 해석의 오류를 줄이고, 2) 같은 질문도 여러 가지 각도로 질문함으로써 연구자의 이해가 옳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밖에 삼각 측량술(triangulation), 정보원 재확인(member check), 외부인을 통한 검사(outside audits)를 통하여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다. 삼각 측량술(triangulation)은 많은 정보원이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인터뷰, 관찰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 수집 방법과, 같은 정보를 다른 원천이나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다시 확인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정보원 재확인(member check)은 연구자가 내린 결론이 원래 정보를 준 정보원에게도 타당한 결과인지 다시 한번 정보원에게로 가서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 날의 인터뷰를 요약하여 그 정보원에게 다시 들려주거나 다른 정보원에게 들려주어 그들의 반응과 조언을 듣는 과정이다. 외부인을 통

한 검사(outside audits)는 다른 연구자에게 연구한 것을 다시 한번 하게끔 하는 것인데 시간과 비용의 관계로 일반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또한 Boynton-Arthur(1993)는 타당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과 함께 양적 연구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인류학 연구에서 과거의 연구를 똑같이 반복 수행하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상황에서 연구된 결과는 빈번히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역동적 상황이 반복되기란 어렵고 인간 행동 역시 정적이지 않아서 똑같이 반복된 연구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에서 여러 방법을 통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시도되어졌다.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1) 정보수집의 방법을 한가지 이상으로 하거나, 2) 한 명 이상의 연구자가 같은 상황에서 정보수집하는 방법이 있다.

인류학의 자연주의적 연구는 심층적 묘사(thick description)를 목적으로 한다. Greets(1973)는 4가지의 워크의 예로 심층적 묘사와 빈약한 묘사(thin description)를 설명하였다. 저절로 발생한 눈의 경련, 친구에게 보내는 신호로써의 워크, 악의적인 즐거움을 주기 위한 워크, 희극배우의 워크 연습 등의 4가지 워크는 물리적 현상으로 볼 때 모두 동일한 워크이다. 그러나 빈약한 묘사는 이 모두를 모두 눈감박이는 것으로만 묘사하나, 심층적 묘사는 각 상황에서의 워크의 의미를 파악하려 한다. 따라서 심층적 묘사를 통하여 독자는 내부자적 관점에서 상황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의류학 분야에서 질적 양적 방법론에 관한 고찰을 다룬 연구들은 Table 1과 같다. Daly(1984)는 의류학 연구의 대부분이 분석적-경험적 관점을 이용했는데 의류학에 관한 인간 행동의 깊은 이해를 위하여 대안적 방법으로 설명적 해석적인 민족지적 접근(ethnographic approach)을 제안하였다. 또한 의류학 영역에서 민족지적 접근을 적용한 주요 간행물과 연구들을 분석하면서 민족지적 접근의 적용 잠재력을 부각 시켰다. Locker(1993)는 의류학 분야 연구 시 질적 요소가 없는 경우 맥락적이고 독특한 자료를 놓치고, 나무 하나 하나는 볼 수 있으나 전

Table 1. Review papers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저자	주제
Daly(1984)	의류학 분야에서 해석적 방법을 이용하여 Ethnographic approach 연구 고찰
Boynton-Arthur(1993)	의류학 분야에서 Ethnography와 Grounded theory의 응용에 관한 고찰
Loker(1993)	의복의 사회적 분야에서 질적 양적 접근의 비교
Kim(1998)	복식사 연구를 위한 연구 방법론 고찰

체적인 숲을 보지 못하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제안하였다. Boynton-Arthur(1993)는 민족지법과 잠정적 이론(grounded theory)의 적용을 제기하면서 통합된 질적 연구 방법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문제점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들었다. Kim(1998)은 복식사 연구에서 사용된 양적, 질적 방법을 분석하면서 각 부분에 적합한 여러 연구 방법의 선택이 효과적으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사 결과 사용되어진 질적 연구방법으로는 서술형(narrative)과 해석형(interpretive)이 있었고 양적 연구방법으로는 내용분석, 빈도 수, 상관관계 분석 등의 방법이 이용되었다. 이상과 같이 몇몇 의류학자들은 기존의 양적 연구 방법 이외에 질적 연구 방법의 적절성이 인간 행동의 깊은 이해를 돕는데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V. 의류학 분야의 문화적 접근의 실제

의류학 분야에서 자연주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이용한 문화적 접근에 관한 연구를 한국과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두 나라의 주요한 의류학 학술지인 한국의류학회지(1977~1998)와 복식지(1977~1998), 그리고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1982~1998),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1977~1998)을 고찰하였고, 이밖에 의류학 분야의 학위 논문이나 다른 학술지에서 발표된 문헌도 첨가하였다. 수집된 문헌의 내용은 Table 2와 같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부터 복식 행동의 인류학적 접근이 시도되었다고 보여지는데 Daly의 연구에서 보여지는 미발표된 석사 학위 논문(Robinson, 1968; Pree, 1970; Azunna, 1977) 등과 The Association of College Professors of Textiles and Clothing에서 발표(Horn, 1974; Malinauskas & Old, 1978; Eicher & Erekosima, 1980)는 인쇄되지 않아서 고찰을 위한 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

Littrell은 1977년 박사 학위 논문과 1980년 학위 논문의 일부를 학회지에 소개하였다. 그녀는 가나인의 왁스 프린트 직물의 디자인, 유통체계, 판매자, 소비자에 관하여 인류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질적 연구와 더불어 양적 연구를 하여 통계적 분석을 포함시켰다.

Wass & Eicher(1980)는 나이지리아의 한가족의 case study를 통하여 의복의 의사 전달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그들은 나이지리아에 6주간 머물면서 참여관찰, 비조직적 인터뷰, 많은 사진들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Eicher & Erickosima(1987)는 나이지리아 칼라바리 장례식을 통하여 직물과 의복이 사회 문화적 의미와 작용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묘사하였다.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은 참여 관찰과 주요 정보원(key informant)에 대한 것이 전부이나 심층적 묘사를 통하여 연구자가 얼마나 주제에 밀접하게 접근했는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Hamilton & Hamilton(1989)은 태국의 카렌족의 전통 의상과 사회적 역할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들은 태국에 거주하면서 참여 관찰을 주로 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정보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여 인류학적 연구에 이것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Michelman & Eicher(1995)는 Kalabari의 사회 문화적 댄스 그룹인 Eremne-ogbo를 대상으로 의복이 그들에게 있어 비언어적 의사 소통의 상징으로서 기여하여, 특히 성 역할의 변화를 어떻게 가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사용된 방법으로는 3개월간 도시체류를 통해 그들의 생활 방식과 언어를 익히고, 개인 인터뷰를 도울 두 명의 현지인을 확보하여 참여 관찰법, 조직적 비조직적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Table 2. Studies of dress and culture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

저자	주제	사용된 방법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언급
Littrell(1977), Littrell(1980)	가나인의 왁스 프린트의 유통체계, 판매자, 소비자.	참여관찰, formal interview, field notes book	3달거주, 질적정보의 양적화와 통계처리
Wass & Eicher(1980)	나이지리아 한 가족의 의복을 통한 의사 전달.	참여관찰, 사진, informal interview	6주 거주, 방법의 다양성
Eicher & Erekosima(1987)	칼라바리 장례식에서 직물과 의복의 의미와 역할.	참여관찰, 사진	key informant 이용한 member check
Hamilton & Hamilton(1989)	태국 카렌족의 전통 의상과 사회적 역할.	참여관찰, 구조적, 비구조적 인터뷰, field notes	2년간 걸친 비 지속적 체류
Popelka(1989)	멕시코 인디안의 hand crafts 사업가의 profile.	심층 인터뷰, 참여관찰	장기간에 걸친 접촉과 본조사를 위해 5개월 체류
Slaybaugh, Littrell, & Farell-Beck(1990)	미국 중서부의 Hmong textile 소비자 profile.	심층 인터뷰, 내용분석, 통계분석	통계분석을 통한 신뢰도 검증
Koster(1991)	미국 중서부의 의류 소매점의 문화를 profile.	long interview, audio tape, 사진	정보 수집서 다양한 방법이용, member check
Michelman & Eicher(1995)	칼라바리 댄스그룹 의복의 비언어적 의사 소통과 성역할의 변화.	참여관찰, 조직적 비조직적 인터뷰	3개월 체류, 방법의 다양성
Scheller & Kunz(1998)	의류생산업자 관점에서 품질에 대한 정의를 탐구.	심층면접, 참여관찰	방법의 triangulation
Dickson & Littrell(1998)	과테말라의 소규모 의류산업체 profile.	심층면접, 참여관찰	방법의 triangulation
유복희(1993)	인도네시아 바틱 염색무늬의 문화적 상징.	문헌적 고찰	없음
정인희(1998)	의복의 착용동기와 유행현상의 상호작용.	개별 면접	없음
민동원(1999)	의복의 상징적 의미 분석.	구조적 면접법	없음

Popelka(1989)는 멕시코 인디안의 성공적인 hand crafts 사업가들을 profile하고, 이들과 미국 중서부 지역의 사업가의 profile과 cross-cultural comparison을 통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탐색하였다. 그녀는 5개월간 멕시코에 체류하면서 심층 인터뷰, 참여관찰을 통하여 정보 수집을 하였다. 미국과 타 문화의 비교 연구로 Dickson & Littrell(1998)의 연구가 있다. 그들은 미국에 의류직물을 수출하는 소규모의 과테말라 사업체를 profile하고 미국과 비교문화 분석을 시도하였다. 방법론에서 질적 연구시 신뢰도와 타당도를 위하여 삼각측량술(triangulation)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지금 까지 살펴 본 연구들은 연구자가 얼마나 오

랫동안 연구 대상 문화와 접촉하여 정보원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방법들, 예를 들면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정보원 재확인(member check)을 함으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며 함을 기술하고 있다. 두 번째 연구의 공통점은 타문화 특히 서구화되지 않은 부족이나 문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이 서구화된 문화권 내의 하위 문화 집단의 역동적 복식 행동 이해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연구자로 하여금 성(gender), 기호(signs), 상징, 정체성과 같이 문화 저변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더욱 적합하다는 것이다(Boynton-Arthur, 1993). 이는 자

하고도 정확한 시각을 산출 할 것이라는 전제와도 관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Slaybaugh, Littrell, Farrell-Beck(1990)은 미국 중서부의 Hmong textile 소비자를 분석하여 생산자에게 디자인적 관점과 마케팅 제언을 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내용 분석과 군집 분석을 하여 소비자를 6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양적 방법을 모두 이용하였고, 특히 내용 분석을 통하여 군집분석을 함으로 질적 데이터를 통계처리 함이 돋보인다. Kosters(1991)는 미국 중서부 의류 소매점의 기업 문화를 분석하였다. 그녀는 긴 시간의 인터뷰(long interview)를 통하여 3개의 소매점의 주인, 판매원, 그리고 소비자와의 관계를 문화적 관점에서 기술하였고, Scheller & Kunz (1998)는 의류의 품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산업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귀납법적으로 정의를 얻어내었다. 위의 연구들은 질적 연구가 마케팅과 소비자 행동 연구에도 유의하게 적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의류학회지와 복식학회지를 조사해 본 결과 복식의 문화에 관련하여 자연주의적 패러다임을 응용한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한 문헌은 발견되지 않았다. 의류학회지의 경우 집중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s), 주관식 질문(open-ended questions), 인터뷰 등이 예비조사나 연구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보완적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여 쓰이고 있었다. 복식지에 발표된 유복희(1993)의 인도네시아의 바틱 염색 무늬의 문화적 상징에 관한 연구는 방법론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적어 어떠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최근의 학위논문 중에서 질적 연구 방법을 이용한 것이 있다. 정인희(1998)는 의복 착용 동기와 유행현상의 상호 작용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 개별 면접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였고, 민동원(1999)은 의복의 상징적 소비 연구에서 문화 기술적 면접 기법(ethnographic interview)을 이용하여 의복의 상징적 의미의 구체적 내용과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녀는 의복 상징이라는 복잡하고 모호한 심층을 분석하는데는 질적 연구 방법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조적 면접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들의 연구들은 기존의 의류학의 소비분야의

연구에 질적 연구 방법을 도입했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연구의 신뢰도나 타당도에 관한 언급이 미흡하여, 질적 연구 방법이 인류학 분야가 아닌 의류학 분야에 좀더 보편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념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VI 결 론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지구라는 테두리에서 의복은 각 문화 체계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의류학 분야에서 이러한 의복 문화의 이해는 사회 문화적 차원 뿐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의복 문화의 다면적 총체적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론적 접근으로 자연주의적 패러다임을 이용한 질적 연구 방법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미국에서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서서히 질적 연구 방법이 이용되기 시작함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사회 과학 연구에서 효율적인 연구 방법론에 관한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옴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질적 연구 방법의 유용성으로는 1) 역동적인 인간 행동 현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그러한 현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애매 모호하고 다양한 것까지도 질적 방법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의복의 경우 민속복식을 일상복으로 착용하는 소수의 문화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현대인은 양복을 착용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범세계적 표준화 전략이 생산비용과 마케팅 비용의 절감을 이유로 채택 가능했으나, 복잡한 문화체제의 상이점 때문에 부작용이 드러나자 현지적응화 전략이나 혼합전략으로 마케팅 전략을 달리하게 되었다. 특히 의복은 문화의 이념, 물질, 조직생활과 밀접히 얽혀있고, 이러한 복잡성과 미묘한 차이는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연구 방법, 예를 들면 장기간의 참여관찰이나 탐색적 인터뷰, 정보원과의 밀착된 관계 형성, 다각적 정보 활용 등의 방법이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 행동이해에 필요하다. 2) 알려진 것이 별로 없는 미지의 분야를 탐색할 때 질

적 연구 방법은 유용하다. 따라서 양적 연구의 pilot study에서 질적 연구 방법 중 집중그룹토의나 주관식 질문지, 간단한 인터뷰 등이 도입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희귀한 문화현상의 보존이나 새로운 분야에서 잠정적 이론이나 가설의 도출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연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례식에 사용된 복식과 직물을 통하여 칼라바리인의 가치관, 사회적 조직간의 상호작용과 역할, 물질문화에 대한 그들의 태도 등을 묘사한 연구는 기존의 양적 연구 방법에 친숙한 연구자에게는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질적 연구는 총체적 이해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 과학은 하나의 현상이나 관점을 전체에서 분리하여 인과 관계를 따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질적 방법은 전체 맥락에서 복잡하게 얽혀진 행동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4) 연구자 자신이 주요 연구 도구이기 때문에 잘 훈련된 연구자는 문화적 체계 속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정보원과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면 양적인 연구에서 다루기 민감한 주제나 들어 나기 어려운 유의한 결과를 찾아낼 수 있다. 이는 연구자의 숙련의 정도에 따라 결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질적 방법은 대가들이 채택하는 방법이고, 양적 방법은 젊은 조교수나 박사과정 학생들이 선호하는 방법”(이재열, 1998)이라고 까지 표현했다.

문화 인류학 분야에서 애용되어온 질적 연구 방법 중 참여 관찰, 조직적, 비조직적 인터뷰, 심층 인터뷰 등의 연구 방법은 의류학 분야의 연구, 특히 문화의 이해와 관련된 인간복식행동과 마케팅 분야 등의 연구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 밖에 집중그룹 인터뷰나 연구 정보의 다각화, 즉 현장 관찰 노트, 사진, 비디오, 오디오 테이프 통한 정보 기록도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질적 접근 방법이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양적 접근 방법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개념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며, 질적인 데이터를 양적화하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더 나아가 양적화된 데이터를 통계 기법을 이용해 분석하는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접목시키는 것도 제안해 본다. 질적 연구에 응용할 수 있는 신뢰도검증 방법으로는 정보수집방법의 다각화, 한 명 이상의 연구자가 같은 상황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고, 타당도 검증 방법으로는 오랜 기간의 현장 참여나, 연구 방법의 triangulation, 정보원 재확인(member check)등을 이용하고 연구방법에 이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질적 양적 연구 방법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다만 현상을 탐구함에 있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두 방법을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한다면 현상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방법론의 triangulation의 개념으로 두 방법을 절충할 수도 있으나, 복식과 문화라는 현상의 이해에는 앞에서 언급한 질적 방법의 유용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방법인 것으로 제안하여 본다.

참 고 문 헌

- Azunna, O.(1977). Textile design inspiration based on traditional artistic culture of the Ibo in Eastern Niger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Wisconsin.
- Bailey, K.(1987). Methods of social research. New York: Free Press.
- Boynton-Arthur, L.(1993). The Applicability of Ethnography and Grounded Theory to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In Lennon, S. J. & Burns, L. D.(Eds), Social Science Aspects of Dress: New Directions(pp. 137-145), ITAA Special Publication #5.
- Burkhalder, S. B.(1988). Product accommodation among rural third world consumers. *Practicing Anthropology*, 10(1), 12-13.
- Burns, L. D. & Lennon, S.(1993) New Directions in Methodological Approaches and Analyses. In Lennon, S. J. & Burns, L. D.(Eds), Social Science Aspects of Dress: New Directions(pp. 197-201). ITAA Special Publication #5.

- Daly, M. C.(1984). Use of the ethnographic approach as interpretive science within the field of home economics: Textiles and clothing as an exampl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3), 354–362.
- Dickson, M. A. & Littrell, M. A.(1998). Organizational Culture for Small Textile and Apparel Businesses in Guatemala.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6(2), 68–78.
- Douglass, S.(1977). Looking at the cultural environment for international marketing opportunities.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12, 102–109.
- Eicher, J. B. & Erekosima, T. V.(1980). Distinguishing non-western from western dress: The concept of cultural authenti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College Professors of Textiles and Clothing, Washington, D. C.
- Eicher, J. B. & Erekosima, T. V.(1987). Kakabari funerals: Celebration and display. *African Arts*, 21(1), 38–45.
- Greets, C.(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 Hall, E. T.(1960). The silent language in overseas business. *Havard Business Review*, May–June, 87–96.
- Hamilton, J. A.(1987). Dress as a cultural subsystem: A unifying metatheory for clothing and textil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6(1), 1–7.
- Hamilton, J. A. & Hamilton, J. W.(1989). Dress as a Reflection and Sustainer of Social Reali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Clothing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16–22.
- Horn, M. J.(1974, June). Kwakiutl version of the Chikat blanket.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College Professors of Textiles and Clothing, Portland, Oregon.
- Kim, H. & Winakor, G.(1996). Fabric hand as perceived by U. S. and Korean males and femal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4(2), 133–144.
- Kim, H. K.(1998). Methodology of the study of Historic Clothing and Textile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J. of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2(7), 952–962.
- Kim, Y.(1995). Analysis of Problems in the Sourcing Strategy of U. S. Apparel and Footwear Industries. *J. of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19(1), 96–103.
- Kosters, P. M.(1991). Corporate culture of small apparel retail firms in towns in the trading area of a regional shopping center. Published master's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Ames, IA.
- Lincoln, Y. S. & Guba, E. G.(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Sage.
- Littrell, M. A.(1977). Ghanaian wax print textiles: Viewpoints of designers, distributors, sellers and consumers. Doctoral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Ann Arbor, MI.
- Littrell, M. A.(1980). Home Economists as cross-cultural researchers: A field study of Ghanaian clothing selec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8, 307–317.
- Locker, S.(1993). Dress and the dynamics of culture: Implications for theory, methods, and content. In Lennon, S. J. & Burns, L. D.(Eds), *Social Science Aspects of Dress: New Directions*(pp. 146–152), ITAA Special Publication #5.
- Malinauskas, J. S., & Old, L.(1978). The decorative artwork of the Coeur d'Alene Indians. Combined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of College Professors of Textiles and Clothing, Reston, VA.
- Michelman, S. O. & Eicher, J. B.(1995). Dress and Gender in Kalabari Women's Societi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3(2), 121–130.
- Popelka, C. A.(1989). Profiles of successful textile handcraft entrepreneurs in Teotilan del Valle, Oaxaca, Mexico.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 University, Ames, IA.
- Pree, D. M. D.(1970). Nez Perce feminine aboriginal cloth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Washington State University, Pullman, Washington.
- Roach, M. E., & Eicher, J. B.(1979). The language of personal adornment. In J. W. Cordwell & R. A. Schwarz(Eds), *The fabrics of culture, the anthropology of clothing and adornment*(pp. 7-12). New York: Mouton.
- Robinson, C. A.(1968). An analysis of contemporary Ecuadorian Indian d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ornell University, Ithica, New York.
- Slaybaugh, J., Littrell, M. A. & Farrell-Beck, J.(1990). Consumers of Hmong Textiles. *Clothing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56-64.
- Scheller, H. P. & Kunz, G. I.(1998). *Toward a Grounded Theory of Apparel Product Quality,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6(2), 57-67.
- Wass, B. & Eicher, J. B.(1980). Analysis of historic and contemporary dress: An African exampl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8, 318-326.
- White, L. A.(1975). *The concept of cultural system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민동원(1999). 의복의 상징적 소비에 관한 질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재열(1998). 사회과학의 질적 연구 방법: 양적 방법과의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 패션마케팅 연구회 월례회(6월13일).
- 유복희(1993). 인도네시아의 바틱(Batik)의 문화적 의미. *복식*, 21, 227-239.
- 정인희(1998). 의복 착용 동기와 유행 현상의 상호작용에 관한 질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